QUANTITATIVE ISSUE

2026. 2. 11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MACRO팀

김동영, CFA Quant Analyst
dy76.kim@samsung.com

MSCI 2026년 2월 정기 리뷰 결과

- MSCI 2월 리뷰가 11일에 발표됨. 편입 2개, 편출 3개 결과.
- 당사 전망과 동일. 편입은 삼성에피스홀딩스, 현대건설임. 편출은 LG생활건강, 코웨이, 두산밥캣임.

WHAT'S THE STORY?

MSCI 26년 2월 정기 리뷰가 2월 11일 아침에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는 편입 2개, 편출 3개의 결과로 나왔다. 편입 종목은 삼성에피스홀딩스, 현대건설이며, 편출 종목은 LG생활건강, 코웨이, 두산밥캣이다. 2월 리뷰 편출입 결과는, 당사의 전망과 정확하게 같다.

MSCI Korea 편입 종목 정보

변화	코드	종목명	EM 내 비중 변화 (%p)	시가총액 (십억 원)	지수 유동 시총 (십억 원)	수급 영향 규모 (십억 원)
편입	A0126Z0	삼성에피스홀딩스	0.027	15,303	4,591	161
편입	A000720	현대건설	0.054	12,472	8,730	306

MSCI Korea 편출 종목 정보

변화	코드	종목명	EM 내 비중 변화 (%p)	시가총액 (십억 원)	지수 유동 시총 (십억 원)	수급 영향 규모 (십억 원)
편출	A051900	LG생활건강	-0.016	4,201	2,730	-96
편출	A021240	코웨이	-0.027	6,278	4,708	-165
편출	A241560	두산밥캣	-0.020	5,962	3,279	-115

참고: 수급 영향 규모는 종목별 유동 시가총액에 "MSCI 추종 자금 / 지수 규모 비율"인 3.5%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삼성증권

편입 확정 종목 중 삼성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수급 영향은 1,61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현대건설에 대한 수급 영향은 3,060억 원으로 추산한다(위의 표 참고). 편출되는 종목인 LG생활건강, 코웨이, 두산밥캣에 대해서는 각각 960, 1,650, 1,150억 원의 순매도 영향을 예상한다.

이번 변경으로 MSCI Korea 종목 수는 81개에서 80개로 바뀐다(1/12의 고려아연 편출 당시 81개로 축소됨). 이번 정기 리뷰의 실제 지수 반영은 2월 27일 장마감 후다.

아직 종목 편출입 정보가 수급 및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수 리밸런싱일까지 점진적인 수급 및 주가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리밸런싱 당일에는, 관련주의 거래량 급증 및 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ppendix. MSCI 지수 설명

MSCI 지수 소개: MSCI 지수란, MSCI(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지수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지수 추종 자금의 매수로 인해 편입 종목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수 구성에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한다.

MSCI 지수의 종류: MSCI 지수 군에는 전 세계 지수를 의미하는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세부 지수가 있다. 경제/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 시장, 신흥 시장,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된 지수가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신흥 시장 지수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와 같이 사이즈별 지수가 제공되며, 이 중 대형주와 중형주 지수를 합한 것이 Standard 지수이다. Standard 지수가 사이즈별 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지수로, 단순히 MSCI 지수라 하면 이 Standard 지수를 의미하며, 이 지수의 추종 자금이 가장 많다.

MSCI 정기 리뷰: MSCI 지수를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정기 리뷰(Index review)는 2, 5, 8, 11월 분기마다 진행된다. 이때 리뷰 결과는 해당 월 중순에 발표되며,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effective date)은 익월 첫날인 3, 6, 9, 12월의 첫 영업일이 된다. 이에 따라 지수의 리밸런싱일은 2, 5, 8, 11월 말의 말일이 된다. 11월의 경우에만 추수감사절 때문에 리밸런싱일이 당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정기 리뷰 외에도 대형 IPO 주를 조기 편입시키는 등의 상시 관리 절차도 존재한다.

이벤트	발표일 (미국 시간)	발표일 (한국 시간)	리밸런싱일(각국 시간)	변경 유효 시작일
26년 2월 리뷰	26-02-10 (화)	26-02-11 (수)	**26-02-27 (금)**	**26-03-02 (월)**
26년 5월 리뷰	26-05-12 (화)	26-05-13 (수)	**26-05-29 (금)**	**26-06-01 (월)**
26년 8월 리뷰	26-08-12 (수)	26-08-13 (목)	**26-08-31 (월)**	**26-09-01 (화)**
26년 11월 리뷰	26-11-11 (수)	26-11-12 (목)	**26-11-30 (월)**	**26-12-01 (화)**

자료: MSCI

MSCI 정기 리뷰 원리: 정기 리뷰는, 시장 흐름을 잘 추적하기 위해 시가총액이 커져서 중요해진 종목을 새로 편입하고, 시가총액이 줄어 덜 중요한 종목을 편출하는 유지 관리 작업이다. 편출입의 기준에는 크게 시가총액 정보와 유동 시가총액 정보가 사용된다. 시가총액으로 정렬하여 큰 종목을 우선 선정하고, 그 종목의 유동 시가총액이 너무 작지 않으면 실제 편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MSCI는 지수 회전율을 낮추기 위해 종목 선정 시 버퍼 룰을 사용한다. 즉, 신규 상장 종목은 기본 시가총액 허들을 통과하면 Standard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존 소형주 종목은 훨씬 큰 허들을 통과해야만 Standard 지수로 들어갈 수 있다.

정기 리뷰 편입 관련해서는, 1) 신규 상장 종목은 시가총액이 Cutoff(원칙적인 시가총액 경계 지점) 이상 및 유동 시총이 Cutoff*0.5 이상이어야 하고, 2) 기존 소형주 종목은 시가총액이 Cutoff*1.5 이상 및 유동 시총이 Cutoff*0.5 이상이어야 편입이 가능하다. 정기 리뷰 편출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총액이 Cutoff*2/3 이상이고, 유동 시총이 Cutoff*1/3 이상이어야 편출을 피하는 구조다.

Compliance notice

- 보고서는 철저히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대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